

2015. 5. 25. ~ 5. 31. 주간

35
VOL

전남농업정보

주간 기상전망

농산물 재배·출하·가격 동향

감자무 재배 동향 및 과채축산물 가격 동향

전남 농특산물 수급 동향

전남 양파마늘 수급 동향

전남 시·군 농정 동향

광양시 우수 농특산물, 전국 이마트에 선보여

농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밥쌀용 쌀 1만 수입...농민들 반발 심화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국내 최초 참바늘버섯 신품종 '미담' 개발

정책동향

영농철 범도민 농촌 일손 돕기 나선다

해외 농업정보

캐나다 온타리오, 조류독감 두 번째 발병



전라남도
JeollaNamdo

요 약

☼ 주간 기상전망(기상청)

-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 기온은 평년보다 높음

☼ 농산물 재배 동향(농촌경제연구원)

- 시설봄감자 생산량 작년보다 22% 감소 전망
- 노지봄감자 생산량 작년과 비슷할 전망
- 시설봄무 생산량 작년보다 11% 감소 전망
- 노지봄무 재배면적 작년보다 5% 감소하지만 평년보다는 13% 증가

☼ 농축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농촌경제연구원)

▶ 과 채 : 수박, 딸기

- 수 박 : 5월 수박 가격은 출하량 늘어 작년보다 낮은 상품 1kg에 1,500~1,800원 전망
- 딸 기 : 딸기 출하량 증가로 5월 가격은 작년보다 다소 낮게 형성될 전망

▶ 축산물 : 돼지, 육계

- 돼 지 : 생산량 감소로 5월 지육가격 탕박 기준 5,000~5,200 원/kg 전망
- 육 계 : 도계 마릿수, 수입 증가로 5월 육계 산지가격 1,500~1,700 원/kg 전망

☼ 전남 농특산물 수급 동향(전라남도)

▶ 전남 양파·마늘 수급동향

- 양 파 : 재배면적은 전국의 51%인 9,171ha이며 도매시장 가격은 701원/kg(전년 461원 대비 52% ↑)
- 마 늘 : 재배면적은 전국의 26%인 5,425ha이며 도매시장 가격은 3,540원/kg(전년 2,740원 대비 29% ↑)

☼ 전남 시·군 농정 동향(한국타임즈, 광남일보)

- ▶ 광양시 우수 농·특산물, 전국 이마트에 선보여
- ▶ 고흥 난지형 햇마늘 본격 출하...가격 '굉충'
- ▶ 영암군 '벼 육묘상자 알선창구' 운영
- ▶ 장흥군, 유기농 인증면적 2배 늘린다
- ▶ “친환경농업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

☼ 농축산식품 수출입 동향(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 ▶ 올해 4월 현재 농식품 수출 20억 달러...전년 대비 0.6% 증가
- ▶ 밥쌀용 쌀 1만t 수입...농민들 반발 심화
- ▶ 2015 케이푸드 페어, 오는 7월 개최 전망
- ▶ 중국 진출 확대·할랄시장 개척 시동...“수출 77억 달러 달성 목표”
- ▶ 알리바바 해외 직구 사이트 '티몰글로벌'에 한국상품관 개설

☼ 농업기술정보(전남농업기술원)

- ▶ 국내 최초 참바늘버섯 신품종 '미담' 개발
- ▶ 전남농기원, 양과 생산비 절감에 전력질주
- ▶ 전남농기원, 양잠농가에 우량 누에씨 1000여 상자 공급
- ▶ 전남농기원 “배 착과불량 과원 적극 관리해야”
- ▶ 전남농기원, 비단꽃향무 절화 1년 2번 생산기술 개발

☼ 정책동향(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부)

- ▶ 영농철 범도민 농촌일손돕기 나선다
- ▶ 농수축산물 도지사 품질인증 신청하세요
- ▶ 친환경 학교급식 안전관리 강화
- ▶ '15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폐업지원금 지급품목 결정
- ▶ 건강한 장바구니, 농촌 6차 산업이 만듭니다
- ▶ 인삼(人蔘), 농산물 최초 “의무자조금” 도입
- ▶ 정부 내년 예산 보조금 삭감...농업예산 '직격탄'

☼ 해외 농업정보(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캐나다 온타리오, 조류독감 두 번째 발병
- ▶ 해외 곡물시장 시황(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선물가격은 미국 대평원 지역의 폭우로 인한 병해충 발생 증가 등 품질 저하에 대한 염려로 가격이 상승
 - 옥수수 선물가격은 기상 여건의 양호에 따른 작황 호조의 기대 심리로 인해 가격이 하락

- 대두 선물가격은 향후 기상 여건의 양호로 인한 작황의 호조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해 7개월래 최저치 기록

☼ 고소득 농업사례(남도일보, 농민신문)

- ▶ 청년농업인 - 장성 동화 믿음농장 이사무엘씨
- ▶ 품질 높이고 생산비 낮추고 유기농쌀 농가 전양순씨

☼ 사업신청 안내(전남도)

▶ 쌀·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 신청기간 : '15. 3. 2. ~ 6. 15.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관원사무소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법인)
- 대상농지
 - 쌀 직불금 : '98~'00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에 이용된 농지
 - 조건불리 직불금 : '03~'05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
- 지급단가(ha당)
 - 쌀 직불금 100만원, 조건불리 직불금 농지 50만원, 초지 25만원
(지급상한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 '15년도 친환경 녹색축산농장 지정 신청

- 신청기간 : 5. 19. ~ 5. 29.(2주간)
- 지원대상 :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가축사육단계 HACCP을 동시에 지정받은 농장
- 지정기한 : 신청일로부터 50일 이내
- 지정절차 : 농가 → 시군 → 도(서류 및 현장심사 후 지정여부 결정)
- 심사분야 : 가축관리, 환경보전, 자원순환, 경관조화, 기록보존
- 적합판정 : 심사평가 결과 평균점수로 환산 80점 이상일 경우 합격

☼ 주요 농축산물 가격 정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5. 5. 26.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5/26)	전주 (5/1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량 작물	쌀(일반계)	20kg	39,800	40,200	40,800	42,600	41,200	↓ 6.6	↓ 3.4
	콩(백태)	35kg	139,000	137,000	136,000	142,000	191,907	↓ 2.1	↓ 27.6
	고구마(밤)	10kg	31,600	31,200	29,000	26,080	28,933	↑ 21.2	↑ 9.2
	감자(수미)	20kg	53,600	58,200	47,100	24,560	27,533	↑ 118.2	↑ 94.7
채 소 류	배추(월동)	1kg	1,180	1,160	520	326	326	↑ 262.0	↑ 262.0
	양배추	10kg	11,000	9,200	5,675	4,200	7,568	↑ 161.9	↑ 45.3
	오이(다다기계통)	15kg	21,667	20,667	32,333	19,000	26,008	↑ 14.0	↓ 16.7
	애호박	8kg	10,800	10,600	16,250	11,360	12,070	↓ 4.9	↓ 10.5
	토마토	10kg	24,400	23,400	32,650	20,320	21,383	↑ 20.1	↑ 14.1
	무(월동)	1kg	560	520	465	492	622	↑ 13.8	↓ 10.0
	당근	20kg	30,000	25,400	22,600	32,200	32,723	↓ 6.8	↓ 8.3
	건고추(화건)	60kg	820,000	820,000	820,000	640,000	772,000	↑ 28.1	↑ 6.2
	풋고추	10kg	46,200	41,000	59,350	41,640	40,657	↑ 11.0	↑ 13.6
	마늘(난지)	10kg	35,400	35,400	35,400	27,520	38,033	↑ 28.6	↓ 6.9
	양파	1kg	710	690	505	604	755	↑ 17.5	↓ 6.0
	대파	1kg	2,180	1,960	1,510	1,132	1,589	↑ 92.6	↑ 37.2
	파프리카	5kg	24,600	18,800	24,650	20,000	21,220	↑ 23.0	↑ 15.9
	방울토마토	5kg	19,200	17,600	22,250	15,040	17,007	↑ 27.7	↑ 12.9
딸기	1kg	-	6,700	8,050	-	5,993	-	-	
과 일 류	사과(후지)	15kg	66,800	65,800	63,800	88,000	80,167	↓ 24.1	↓ 16.7
	배(신고)	15kg	41,200	40,600	40,800	52,400	50,067	↓ 21.4	↓ 17.7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5/26)	전주 (5/1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32,000	532,000	532,000	534,000	563,333	↓ 0.4	↓ 5.6
	들깨	45kg	420,000	420,000	420,000	446,000	359,600	↓ 5.8	↑ 16.8
	새송이버섯	2kg	8,400	8,400	8,650	8,400	8,055	-	↑ 4.3
축산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6,552	6,528	6,486	6,173	6,014	↑ 6.1	↑ 8.9
	돼지고기(삼겹살)	100g	2,234	2,144	1,959	2,046	1,907	↑ 9.2	↑ 17.1
	닭고기	1kg	5,203	5,353	5,466	6,164	5,823	↓ 15.6	↓ 10.6
	계란(특란)	10개	1,995	1,986	1,980	2,005	1,852	↓ 0.5	↑ 7.7
	우유	1리터	2,548	2,548	2,548	2,544	2,293	↑ 0.2	↑ 11.1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5. 5. 26.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율(%)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4,670 천원	4,702 천원	4,128 천원	↓ 0.7	↑ 13.1
	거세	5,737 "	5,684 "	5,407 "	↑ 0.9	↑ 6.1
송아지 (6~7월)	암	2,223 "	2,286 "	1,679 "	↓ 2.8	↑ 32.4
	수	2,718 "	2,793 "	2,551 "	↓ 2.7	↑ 6.5
육우(600kg)		3,431 "	3,160 "	2,396 "	↑ 8.6	↑ 43.2
젖소수송아지(7일령)		178 "	149 "	17 "	↑ 19.5	↑ 947.1
돼지(110kg)		503 "	478 "	392 "	↑ 5.2	↑ 28.3
육계(원/kg)		1,244 원	1,543 원	1,174 원	↓ 19.4	↑ 6.0
계란(원/특란10개)		1,360 원	1,425 원	1,396 원	↓ 4.6	↓ 2.6
오리(원/kg)		2,333 원	2,333 원	3,833 원	-	↓ 3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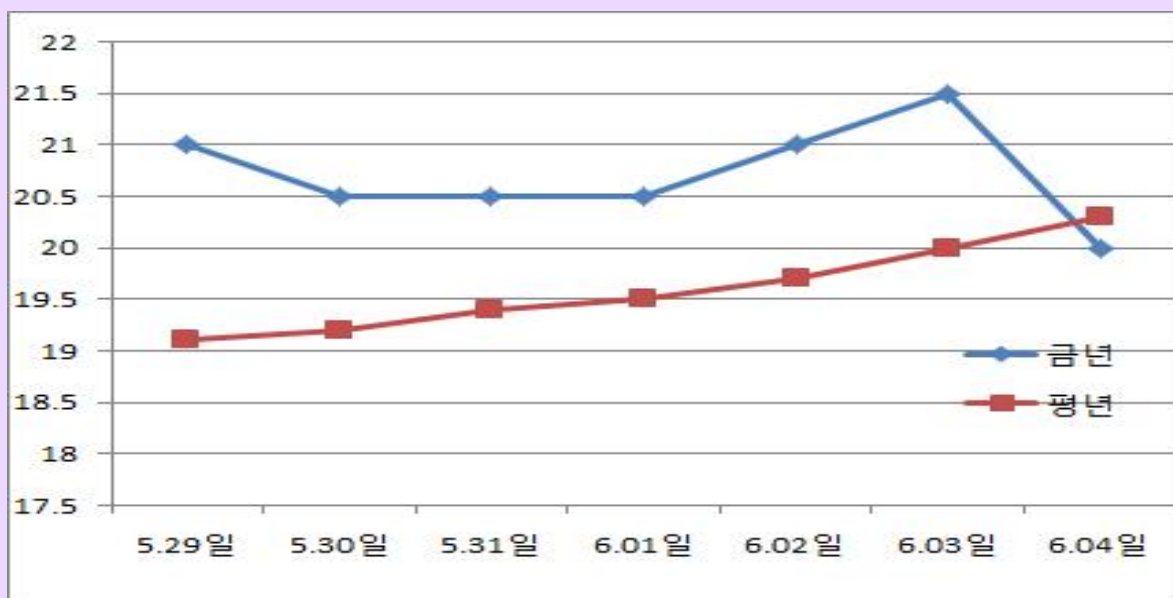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1. 주간 기상전망

(기상청 중기예보 /목포 기준)

일 별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균(계)	20.7	19.6	1.1	25.3	24.7	0.5	16.1	15.7	-0.7	3.3
5. 29.(금)	21	19.1	1.9	26	24.2	1.8	16	15.3	-0.7	2.6
5. 30.(토)	20.5	19.2	1.3	24	24.3	-0.3	17	15.3	-1.7	3.4
5. 31.(일)	20.5	19.4	1.1	24	24.5	-0.5	17	15.5	-1.5	3.7
6. 01.(월)	20.5	19.5	1	25	24.6	0.4	16	15.7	0.3	3.8
6. 02.(화)	21	19.7	1.3	26	24.9	1.1	16	15.8	0.2	3.7
6. 03.(수)	21.5	20	1.5	27	25.2	1.8	16	16.2	-0.2	3.5
6. 04.(목)	20	20.3	-0.3	25	25.5	-0.5	15	16.4	-1.4	2.5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평균 기온(°C)>

2. 농산물 재배 동향

감자·무 재배 동향

□ 시설봄감자 생산량 작년보다 22% 감소 전망

- 시설봄감자 생산량은 추정된 재배면적과 단수를 고려할 경우 3만 2천톤으로 작년과 평년보다 22%, 17%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 시설봄감자 재배면적은 작년대비 1% 적고 평년과 비슷한 1,465ha이며, 단수는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22%, 17% 감소한 2,169kg/10a으로 조사되었다.

□ 노지봄감자 생산량 작년과 비슷할 전망

- 노지봄감자 생산량은 추정된 재배면적과 단수를 고려할 경우 43만 톤으로 작년과 비슷하고 평년보다 1%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 노지봄감자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2% 증가하지만 평년보다 10% 감소한 15,844ha이다. 단수는 작년보다 2% 감소하지만 평년보다 10% 증가한 2,717kg/10a으로 조사되었다.

□ 시설봄무 생산량 작년보다 11% 감소 전망

- 시설봄무 재배면적은 작년 출하기 가격 약세로 작년보다 11% 감소한 104ha로 추정된다.
- 시설봄무 파종시기는 작년과 비슷하고 단수는 작년 및 평년 수준인 9,895kg/10a으로 추정된다.
- 금년 시설봄무 생산량은 추정 면적과 단수를 적용할 경우 약 1만 톤으로 작년보다 11%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 노지봄무 재배면적 작년보다 5% 감소하지만 평년보다는 13% 증가

- 노지봄무 재배면적은 작년 출하기 및 금년 파종기 가격 약세로 작년보다 5% 감소하지만 평년보다는 13% 증가한 1,365ha가 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지역별로는 작년보다 경기·강원이 2%, 충청은 8%, 호남과 영남은 4~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금년 노지봄무 생산량은 추정면적에 평년 단수를 적용할 경우 11만 8천 톤으로 작년보다 13% 감소하지만 평년보다는 13%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3. 농축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

과 채 : 수박, 딸기

○ (수 박)

- 5월 수박 가격은 출하량 늘어 작년보다 낮은 상품 1kg에 1,500~1,800원 전망

○ (딸 기)

- 딸기 출하량 증가로 5월 가격은 작년보다 다소 낮게 형성될 전망

축산물 : 돼지, 육계

○ (돼 지)

- 생산량 감소로 5월 지육가격 탕박 기준 kg 당 5,000~5,200원 전망

○ (육 계)

- 도계 마릿수, 수입 증가로 5월 육계 산지가격 1,500~1,700원/kg 전망

*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4. 전남 농특산물 수급 동향

전남 양파·마늘 수급 동향

○ (양 파)

- 재배면적 : 9,171ha(전년 대비 24.1% 감, 평년 대비 19.3% 감) - 전국의 51%
- 조생종 1,493(16%), 중만생종 7,678(84%)
- 발매기 거래
 - (조생종) 8~11천원/3.3m²(전년 5~7천원/3.3m²)
 - (중만생) 8~9천원/3.3m²(전년 5~6천원/3.3m²)
 - * 지난 해 큰 폭의 가격하락으로 손해를 많이 본 상인들이 발매기 거래를 꺼리고 있어 5월 중순 현재까지도 거래실적이 10% 미만으로 낮음
- 출하동향 : 1,340ha(전체 면적 9,171ha의 15%) - 조생종 90% 수확
- 도매시장 가격('15.5.19.현재, 상품기준)
 - 양파 : 701원/kg(전년 461원 대비 52% ↑, 평년 600원 대비 17% ↑)

○ (마 늘)

- 재배면적 : 5,425ha(전년 대비 26.4% 감, 평년 대비 32.8% 감) - 전국의 26%
- 남도 4,232(78%), 대서 1,031(19%), 기타 162(3%)
- 발매기 거래 : 11~12천 원 / 3.3m²(전년 7~8천 원 / 3.3m²)
 - 거래실적 : 고흥 72%, 해남 63%, 신안 66% * 전년도 거래실적 35~40%
- 출하동향 : 100ha(전체 면적 5,425ha의 2%) * 고흥지역에서 주대마늘로 출하
- 도매시장 가격('15.5.19.현재, 상품기준)
 - 마늘 : 3,540원/kg(전년 2,740원 대비 29% ↑, 평년 3,500원 대비 1% ↑)
 - ※ 1단(50개) : 특품 12,000원, 상품 8,000원, 중품 6,000원, 하품 4,000원

* 출처 : 전라남도

5. 전남 시·군 농정동향

■ 광양시 우수 농·특산물, 전국 이마트에 선보여

- 금년부터 코젯, 새싹삼 추가 납품, 파프리카도 협의 중 -

- 광양시는 기존의 애호박, 미노오이, 양상추, 샐러리 등에 이어 금년부터 코젯과 새싹삼을 전국 이마트에 추가로 납품한다고 밝혔다.
- 코젯은 지난 8일 이마트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5월 14일부터 전국 150여개 점포에 선보이고 있으며, 새싹삼은 6월 4일부터 전남 2개 점포(순천, 여수)에 납품하고 파프리카도 추가납품을 위해 현재 협의 중에 있다.
- 코젯은 작년 광양시호박연구회(회장 김상순)를 중심으로 광양시가 전라남도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실증시험 연구사업을 통해 발굴한 채소로, 비타민 A가 풍부하다.
- 애호박과 비슷하지만 생으로 먹을 수 있으며, 난방비와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어 효자 작목으로 부상하고 있다.
- 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 납품으로 지역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게 되어 농가에 경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광양시 우수 농·특산물을 적극적으로 발굴, 홍보하여 대형할인매장 등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코젯은 요구르트와 함께 갈아 먹는 주스와 각종 채소, 과일 등과 섞어 먹는 샐러드, 우유, 밀가루를 넣은 코젯호박전, 채소, 쇠고기와 함께 샤브샤브 등으로 요리해 먹을 수 있다.
- 새싹삼은 삼(蔘) 종류로 주로 뿌리만 먹는 인삼, 산삼과는 달리 뿌리, 줄기, 잎까지 통째로 먹는 웰빙채소이다. 인삼의 주요성분인 사포닌 함량이 기존 수삼보다 월등히 높으며 특히 잎은 뿌리보다 8~9배가 많은 사포닌을 함량하고 있다.

- 또 쌈채소, 샐러드, 무침, 부침, 김치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으며, 생으로 먹거나 음료로 만들어 먹을 수 있다.

* 출처 : 한국타임즈

■ 고흥 난지형 햇마늘 본격 출하...가격 '경충'

- 작황 부진 생산량은 감소...무름병 피해 -
- 포전 거래가격 3.3㎡당 1만원~1만3000원 -
- 전국 최대의 난지형 마늘 주생산지인 고흥 마늘이 본격 출하됐다. 가격은 높게 형성됐지만 작황이 부진해 생산량과 품질이 예년보다 떨어질 전망이다.
- 고흥군에 따르면 녹동농협(조합장 양수원)이 지난 19일부터 수매에 들어갔지만, 30%에 이르던 마늘 상(上)품이 10%에 그칠 정도로 작황 부진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햇마늘 주산지인 도덕면과 풍양면 등에서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됐으나, 올해 생육 후기 잦은 강우로 무름병이 발생하고 종구비대가 활발하지 않아 작황이 부진한 편이다.
- 하지만 산지 마늘 포전 거래가격이 3.3㎡당 1만원~1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5000~7000원으로 높게 형성되고 있다.
- 녹동농협 관계자는 "무름병에 의해 포전거래 상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면서 "농가에는 수매가가 높아 이익이 되겠지만 전체 농가소득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특히 고흥마늘은 군 전체 7900여 농가가 1523ha 재배면적에서 2만1000톤을 생산할 예정으로, 5월 중순부터 수확해 6월 상순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 군 관계자는 "마늘의 가격 안정과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농업회사법인과 생산자 단체가 마늘 가공에서부터 출하하는 시스템 체계 구축을 위해 원예(마늘)브랜드사업을 준공했고 이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한편, 군은 산지 재배농가와 포전거래 계약 후 잔금 지불을 미루거나 삭감하는 수집 상인들의 불공정 거래의 고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재배 농가와 상인 간의 매매계약서 표준약관 지침을 마련하는 등 안정적인 생산과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 고흥 마늘은 매운맛이 적어 순하고 부드러워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주성분인 알린 등의 함량이 많고 인편조각이 단단하며 마늘 표면의 선명한 적색이 다른 지역 마늘과 구분되는 등 고유의 특성을 갖고 있다.
- 또 지리적표시 제99호로 등록된 고흥마늘은 잎을 제거하지 않고 주대마늘로 전국 도매시장에 출하돼 수입산 또는 한지형 마늘과 구별된 난지형 마늘로 장아찌용으로 인기가 매우 높다.

* 출처 : 광남일보

■ 영암군 `벼 육묘상자 알선창구` 운영

- 내달 중순까지 희망 농가 연결...농기센터·상담소 접수 -

- 영암군은 오는 6월 중순까지 한달간 모가 남고 부족한 농가를 서로 연결해주는 '벼 육묘상자 알선창구'를 운영한다.
- 벼 육묘상자 알선창구는 모판이 남는 농가는 잉여 모판을 폐기하지 않아 실비를 받고 남는 모판을 처리할 수 있고, 모판 구입 농가는 육묘 실패와 모판 부족으로 당장 모를 심어야 하는 급한 사정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농가 호응이 높다.
- 지난해의 경우 모 판매 및 구입을 희망하는 150농가에 1만5360여 상자를 연결해 모판 구입비용 35%정도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 영암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관내 이앙이 마무리 될 때까지 모판이 남거나 부족한 농업인은 군 농업기술센터나 읍면농업인상담소에 신속히 연락해 알선창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출처 : 광남일보

장흥군, 유기농 인증면적 2배 늘린다

- 2018년까지 4천151ha 이상 확대 추진 -

- 전남 장흥군은 오는 2018년까지 유기농 농산물의 인증면적을 2배 이상 확대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 군은 내년부터 정부 정책으로 저농약 인증이 완전 폐지되고 유기농 중심으로 인증단계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 같은 시책을 마련했다.
- 현재 장흥군은 총 경지면적의 25.3%가 친환경인증(유기농, 무농약)을 받아 비울면에서 전남도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 군은 지난해 말 2천956ha이던 친환경 인증면적을 2018년까지 4천 151ha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 특히 무농약 인증은 20%를 증가시키는데 비해, 유기농 인증면적은 100% 이상 끌어올려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부응할 방침이다.
- 부산면과 유치면의 4개 마을은 100% 친환경 유기농업 지역으로 지정하고 단계적으로 시행지역을 늘려가기로 했다.
- 장흥 대표 특산물인 표고버섯을 비롯해 고사리, 헛개나무, 황칠, 취나물 등의 임산물의 100% 유기농 인증도 추진할 계획이다.
- 군은 유기농 실천의식을 높이기 위해 선도 농가를 중심으로 기술 교육 전담반을 구성하고 품목과 재배 시기별로 현장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 농가의 참여 촉진을 위해서는 친환경 인증수수료 90%를 지원하고 1ha당 유기농은 120만원, 무농약은 70만원의 장려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 군 관계자는 “앞으로 우리 농산물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친환경 경영이 가장 중요하다”며 “유기농 면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농민들이 흘린 땀만큼 제값을 받는 농산물을 생산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남도일보

■ "친환경농업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

- 화순군, 전남대 김길용 교수 초청 아카데미 개최 -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최근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만연홀)에서 전남대 김길용 교수를 초청, '기능성 미생물을 이용한 작물재배 및 인간건강'이라는 주제로 '제1기 명품 화순 아카데미' 8회차 강연회를 개최했다.
- 김 교수는 전남대에서 농화학을 전공하고 미국 미주리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토양미생물 박사학위를 취득, 현재 전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물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 '친환경농업 전도사'로 불리는 김 교수는 10년의 연구 끝에 개발한 '키틴분해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농법'에 대해 강의했다.
- 이 농법은 키틴분해미생물을 식물에 살포해 식물의 병을 일으키는 사상균의 세포벽이나 선충의 알을 구성하고 있는 키틴성분을 파괴하는 원리를 이용해 식물병을 방제하는 미생물농법이다.
- 현재 국내에서 김 교수의 연구를 활용한 농가는 3000여 곳을 넘어가고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널리 알려져 캄보디아나 미얀마 등에서 김 교수의 키틴농법을 도입하고 있다.
- 김 교수는 "농약을 전혀 쓰지 않고 수확량을 증대할 수 있는 농법에 포커스를 맞춰 친환경농법을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속도는 조금 늦을지라도 친환경 농업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강조했다.
- 오는 22일은 윤정승(광주 광산경찰서 월곡지구대장) 강사의 '전통 형벌제도 및 범죄피해 예방'이란 주제로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 출처 : 광남일보

6. 농림축산식품 수출입동향

■ 올해 4월 현재 농식품 수출 20억 달러...전년 대비 0.6% 증가

- 일본 '들기름', 중화권 '맥주' 수출 증가 -

- 올 4월까지 우리 농식품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0.6% 늘어난 20억 달러를 기록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같은 기간 국가 전체 수출액이 4.3% 감소한 상황에서, 농식품 수출이 증가세를 보인 큰 이유는 가공식품의 수출 저변이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본에서 들기름 제품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고, 맥주가 한류 영향으로 중화권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월까지의 들기름 전체 수출실적은 268만 달러로, 전년 동기과 비교해 무려 2074% 증가했다. 이 중 대일본 공급 비중이 전체 수출의 96% 달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일본 TV 프로그램에서 들기름이 치매 예방 등에 효과가 있다고 소개되면서 우리 제품 수요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 강혜영 농식품부 수출진흥과장은 “일본의 들기름 생산규모가 크지 않아 급격하게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리 제품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들기름이 연간 500만~6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효자 상품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 맥주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증가한 2,694만 달러를 기록했다. 주로 홍콩과 중국 등 중화권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에서는 한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영향으로 치킨과 함께 우리 맥주 제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중국은 지난해 시안에서 개최한 소비자 체험행사 및 현지 대형유통업체 CRV와 연계한 판촉행사 영향으로 소비 저변이 중국 동부 연안지역에서 내륙시장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 또한 중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국내 조제분유 브랜드 인지도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이 지역의 조제분유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대중국 조제분유 수출은 전년대비 37% 늘어난 2,932만 달러, 베트남은 82% 증가한 398만 달러를 기록했다.
- 이 외에도 시장별로는 중국(3억2,890만 달러)과 미국(2억150만 달러)이 각각 9.5%, 5.6% 증가했고, EU도 46.5% 늘어난 1억2,820만 달러로 집계됐다.

* 출처 :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 밥쌀용 쌀 1만t 수입...농민들 반발 심화

- 농민단체 "명분없다...쌀값폭락" vs 정부 "관세율 지키려면 불가피" -

- 정부가 밥쌀용 쌀 1만t을 수입하기로 하면서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 그동안 밥쌀용 쌀을 계속 수입해왔으나, 올해부터 수입쌀에 관세율 513%를 매겨 시장을 개방하면서 밥쌀용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한다는 예전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 정부는 수입국이 관세율에 이의를 제기해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513%를 방어하려면 밥쌀용 쌀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지난 8일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밥쌀용 쌀 1만t 구매 입찰을 공고했다. 21일 전자입찰로 수입업체가 선정돼 오는 9월과 10월 미국산 밥쌀용 쌀이 각각 5천t씩 들어올 예정이다.

- 전국농민회총연맹은 21일 발표한 결의문에서 "밥쌀용 쌀 수입은 세계무역기구(WTO) 쌀 협상을 포기하는 행위이자 쌀값 폭락을 부채질하는 행위"라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밥쌀용 쌀 수입 입찰을 강행해 농민을 배신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전농은 이날 서울역 광장, 전남 나주 aT센터 앞,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부산 영도구 사무실 앞에서 각각 밥쌀용 쌀 수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 녹색당도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 올해부터 쌀 수입허가제 폐지(쌀 관세화)를 추진하면서 의무 수입 물량의 30%(약 12만t)를 밥상용 쌀로 수입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졌다"며 "지금 밥쌀용 쌀을 수입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 수입쌀은 막걸리 같은 가공식품에 쓰이는 가공용 쌀과 밥상에 직접 오르는 밥쌀용 쌀로 나뉜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입한 밥쌀용 쌀은 총 12만3천t이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9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올해 1월 1일부터 수입쌀에 관세율 513%를 매겨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내용의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했다.
- 그러면서 양허표에서 밥쌀용 수입 비중(30%) 등 쌀개방 이전에 적용해온 저율관세물량의 용도 규정을 삭제했다. 그동안 쌀 관세화를 유예하면서 부담한 의무가 사라진 것이다.
- 규정이 없어졌더라도 밥쌀용 쌀 수입 중단은 국내산과 외국산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국민 대우 원칙'에 어긋나 협상 상대국이 문제 삼을 소지가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5개국은 WTO에 우리 정부가 결정한 수입쌀 관세율 513%이 지나치게 높다고 공식 이의제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국가와 협상하고 있다.

- 그러나 녹색당은 논평에서 "정부는 쌀 관세율 협상에서 관세율 513%를 지키기 위해 밥쌀용 쌀을 수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관세율 협상과 밥쌀용 쌀 수입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입 밥쌀용 쌀이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국내 수급 상황과 쌀값 동향을 보고 신중하게 운영해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연합뉴스

■ 2015 케이푸드 페어, 오는 7월 개최 전망

- 7월 중국 칭다오 시작으로 총 5개국 7개 도시 개최...중국 내륙지역 및 할랄시장 집중 공략 -
- 해외시장 맞춤형 종합 판촉전으로 각광받고 있는 케이푸드 페어(K-Food Fair)가 올해에는 7월부터 개최될 전망이다.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에 따르면 케이푸드 페어는 전시·상담 위주의 정형화된 기존의 국제식품박람회와 달리, 수출이 유망한 해외시장에 직접 찾아가 우리 농식품을 홍보 및 상담, 체험까지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종합 판촉행사다.
- 2013년 6월 중국 상하이에서 첫 개최된 케이푸드 페어는 그 해 4개국 5개 도시에서 진행됐고, 지난해의 경우 5월에 베트남 호치민을 시작으로 총 4개국 7개 도시에서 열렸다. 수출상담성과 및 해외소비자 참여는 2013년 1억7,100만 달러·26만8000여 명에서 지난해 1억8,600만 달러·40만2000여 명으로, 케이푸드 페어에 대한 해외 관심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 올해 케이푸드 페어는 지난 3월 말 열린 제5차 농수산물식품 수출 개척협의회에서 밝혔듯이 중국 내륙지역과 할랄시장에 집중 추진된다.

- 첫 개최 시기는 7월이 유력할 전망이다. 7월 초순경 칭다오를 시작으로 8월 말레이시아, 9월 시안과 베트남, 10월 인도네시아, 11월 두바이와 충칭 등 총 5개국 7개 도시에서 케이푸드 페어가 열릴 예정이다.
- 특히 칭다오 케이푸드 페어는 농식품 수출전진기지 개소식과 함께 진행되며, 이 자리에는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이달 중 개최 지역에 따라 순차적으로 참가 수출업체 및 행사 진행 대행사를 모집 공고한다.
- 정장식 농식품부 수출진흥과 사무관은 “국내 식품업체의 신규시장 진출과 인지도 향상에 케이푸드 페어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출처 :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 중국 진출 확대·할랄시장 개척 시동.. "수출 77억달러 달성 목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농촌진흥청·산림청·농협중앙회 등 농업계 주요기관들이 우리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새로운 수출시장 공략 및 수출 관련 기술 개발·지원, 수출기반 확대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2015년도 정부의 농식품 수출 목표인 77억 달러 달성을 위한 농업계 주요 기관들의 수출 활성화 방안을 정리했다.
 - ▲aT, 중국·아세안 등 신흥시장 공략=aT는 정부의 농식품 수출목표인 77억 달러 달성을 위해 중국(12.3억 달러)·아세안(13.1억 달러) 등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수출 시장 공략을 강화해 나간다.
- 중국의 경우 칭다오에 건립한 수출전진기지를 활용한 종합 서비스 제공 및 마케팅 확대를 통해 수출 활성화를 모색한다. 또한 티엔마오·위마이왕 등 중국의 온라인 B2C몰에 ‘한국식품전용관’

설치를 확대하고, 유아식품 시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공략해 나갈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아세안·할랄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올해 하반기 안으로 시장 동향 및 수출 유망품목 등에 대한 심층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초기 단계인 할랄 시장 수출지원을 위해 6월 중으로 아부다비 사무소 설치를 완료하고, GCC(걸프협력회의) 국가 수출상담회 개최와 대형유통업체 입점을 추진해 새로운 수출 선발굴 및 우리 농식품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 유충식 aT 수출이사는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수출국 현지 전문기관의 상시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중소수출업체에 대한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 ▲ 농진청, 수출 관련 기술 개발 및 지원=농진청은 신선농산물 수출 품종 육성 및 저장·유통기술 개발, 가공기술 개발과 수출 규격품 생산을 비롯한 기술지원 체계 구축 등 수출 현장에 필요한 ‘기술 개발 및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이를 위해 지난 3월 수출딸기 연구사업단을 출범시키는 등 수출 현안에 대응한 기술연구 기반 구축에 돌입했으며, 앞으로 △주요 수출국 맞춤형 단감 생산기술 개발 △수출 품목별 신선도 유지 및 유통연장 기술 개발 △수출 포도 글로벌 GAP 인증농가 현장 문제 해결에도 나설 계획이다.
- 이밖에 할랄 시장 진출 지원에도 참여해 오는 9월 할랄 자료집을 발간하고, 우리 농식품 특성을 반영한 할랄 식품 개발도 추진할 방침이다. 라승용 농진청 차장은 “올해 농진청에 신설한 수출농업지원과를 통해 수출농업 분야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산림청, 수출기반 확립 주력=산림청은 올해 임산물 수출 목표를 5억 달러로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수출상품 개발과 수출 단지화에 나서는 등 수출기반 확립에 돌입할 계획이다. 또 보다 체계적인 임산물 수출 방안으로 수출전문조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산림청은 이를 위해 밤·감·표고·산양삼 등에 대한 고부가 수출전략상품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부여(표고)·청양(밤)·청도(감)와 같은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 및 공동 수출장비·선별시설 지원을 바탕으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 이와 함께 밤, 감, 표고버섯, 목재제품, 합판·보드의 5개 품목별 수출협의회에 공동마케팅·물류비 인센티브 지원 등 각종 사업을 집중해 자율기능을 확대할 생각이다.
- 이순욱 산림청 임업통상팀장은 “수출장애요인을 해소해 임산물 수출확대여건을 조성하고, 중국·할랄 등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데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농협, 2017년 10억 달러 수출 목표=농협은 2017년까지 농식품 수출액 1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농협의 계통조직별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

- 중앙회에서는 전국 4대 권역 수출전문단지 육성을 통해 올해 수출전업농(2600명→3000명) 및 공선출하회(100개→200개), 수출연합조직(7개→10개)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NH무역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전업농·공선출하회·수출농협과의 수직계열화를 추진하고, 중국·미국 등 해외법인 활성화를 통해 수출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 농협은 이와 함께 글로벌 GAP 인증 및 수출연합 품목 확대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중소과 등 수출용 규격 생산지도와 교육을 바탕으로 미국·대만·동남아 현지인 시장을 집중 공략할 예정이다.

- 아울러 김치·김·음료 등 10개 공장 40개 품목까지 할랄 인증을 확대해 할랄 시장을 공략하고, 산지농협의 할랄 인증 및 이슬람 시장 진출을 위해 무이자자금 100억 원을 지원한다.
- 나승렬 농협 농경지원본부장은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aT·농진청·농촌경제연구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알리바바 해외 직구 사이트 '티몰글로벌'에 한국상품관 개설

-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Alibaba)가 운영하는 해외 직구 전용 사이트 '티몰글로벌(Tmall Global)'에 한국상품관이 개설돼 우리 농식품의 중국 온라인 시장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1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알리바바 티몰글로벌 한국상품관' 개통식이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재수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마윈 알리바바 회장, 수출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축사에서 “중국 소비자들은 티몰글로벌 한국상품관을 통해 정부가 직접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한 우리 농수산물식품을 더욱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며 “입점한 국내 업체들도 제품 인지도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앞으로 우리 농식품의 대중국 수출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마윈 알리바바 회장은 “이번 한국상품관은 알리바바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설하는 최초의 국가관으로, 그만큼 많은 중국인들이 농식품을 비롯한 한국의 상품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특히 중국 온라인 시장 진출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많이 입점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 한편 티몰글로벌 한국상품관(korea.tmall.com)은 그동안 티몰(Tmall)과 타오바오(Taobao) 등 알리바바 쇼핑몰 사이트에 개별로 흩어져있던 우리 상품들을 한 곳에 모아 테마별로 통합 노출한 국가 전용관이다.
- 농식품의 경우, 지난해 10월 27일 중국 B2B 온라인 마켓 알리바바(1688.com)에 한국 농식품 전용 판매장이 처음으로 개설된 사례가 있다.
- 한국상품관에서는 농식품과 화장품 등 다양한 우리 상품이 중국 온라인 소비자에게 판매되며, 한류스토리과 여행정보 등 다양한 콘텐츠도 제공된다. 현재 한국상품관에 입점한 우리 농식품의 품목 수는 약 1500여개로, 주로 유자차와 조미김, 스낵류 등이 입점됐다.
- aT와 무역협회는 단계적으로 품목 종류 및 입점업체 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7. 저비용 · 고효율 농업기술정보

■ 국내 최초 참바늘버섯 신품종 ‘미담’ 개발

- 완도수목원, 신품종보호 출원 신청...항당뇨 효과도 밝혀내 -

-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소장 박화식) 완도수목원은 인공 재배에 적합하고 상품성 있는 참바늘버섯 신품종 ‘미담’을 개발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신품종보호 출원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 쫄깃한 식감과 고유의 향으로 샐러드에 적합하며 기타 요리에 첨가해 풍미를 더하는 참바늘버섯은 일본 특정 지역에서 가을철에만 예약을 받아 판매할 정도로 희귀성이 있다. 특히 혈압과 혈당 조절에 탁월해 그 가치성이 높게 평가된 기능성 고부가가치 버섯이다.
- 신품종 ‘미담’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의 노력 끝에 얻어진 성과로, 국내에서 자생하는 개체와 인공 교배를 통해 개발했다. 톱밥 재배에 최적화 한 것으로 수차례에 걸쳐 생산성 검정과 저장성, 향기 등의 특성 평가를 통해 선발한 후 시장성 있는 품종으로 최종 선발했다.
- 기존 야생에서 채취된 버섯과 형태적인 차이는 육질이 두껍고 버섯 끝부분의 가장자리가 매끄러운 것이 특징이며, 이와 함께 산뜻한 과일향이 강해 식감뿐만 아니라 후각까지 충족시켜 음식의 풍미를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 이 품종은 2014년 4월 국립산림품종개발센터에 품종 보호출원을 신청했으며 2015년 1작기 재배심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2016년 2작기 재배 심사가 끝나면 신품종으로 최종 확정되며 이에 맞춰 농가 보급을 위해 대량생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참바늘버섯은 일명 침버섯이라고도 불리며 일본에서는 식용버섯 (브나하리타케)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국내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자생버섯으로 안전성평가연구소와 함께 2014년부터 유전독성 평가 결과 안전성이 확인된 바 있다.
- 또한 체지방 분해 및 콜레스테롤 개선, 항당뇨 효과 등이 이번 연구를 통해 입증됐고, 연구 결과는 국내 및 SCI 논문으로 게재된 바 있다.
- 오득실 완도수목원장은 “신품종 ‘미담’이 항천식 효과가 탁월함에 따라 조만간 산업재산권을 확보하고 재배법을 기술이전하는 등 버섯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라남도

■ 전남농기원, 양파 생산비 절감에 전력질주

- 종자대 절감 신품종 육성, 인건비 절감 기계화 재배기술 개발 추진 -

- 우리 지역에 알맞은 양파 신품종 및 정식에서 수확까지 일관 기계화가 가능한 기술들이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되고 있다.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최경주)은 전남이 전국 재배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양파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신품종 육성과 기계화 재배기술 개발을 동시에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양파 생산비는 크게 인건비와 종자구입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종자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종자구입비가 생산비의 10.4%를 차지하여 국내품종 육성 보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양파 정식과 수확기에 치솟는 인건비를 해결하기 위해 재배 노동

력 절감을 위한 기계화 기술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초기 단계로 육묘, 정식, 수확 등의 기술이 정립되지 않았다.

- 이러한 양파재배의 종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기술원은 우리지역 환경에 적합한 병에 강하고 다수확이 가능한 신품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양파 유전자원을 수집하여 양파 육종을 시작했다.
- 그 결과 지금까지 수량이 높아 생산비를 절감 할 수 있는 신품종 3계통을 육성했다. 그 중 극조생 전남4호는 내병성이 강해 상품수량도 6,598kg/10a으로 일본종 미루시노 대비 24% 수량 증대 효과를 보였고 구형이 원형으로 요리하기에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 농업기술원은 양파 신품종 극조생 전남1호, 전남4호, 중만생 전남5호 3계통을 개발하여 2016년에 전남1호 품종보호출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오는 2017년까지 전남4호와 5호도 지역적응시험을 거친 후 품종보호출원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 원예연구소 정효진 연구사는 “양파 기계정식을 위한 트레이 육묘시 관수방법, 전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시비방법 등 향후 2년에 걸쳐 재배기술을 정립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더 나아가 수확까지도 일관 기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농가 생산비 절감 및 소득증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전남농기원, 양잠농가에 우량 누에씨 1000여 상자 공급

-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최경주)은 누에사육기를 맞아 자체 생산한 우량 누에씨 1000여 상자를 22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양잠농가에 공급한다.

- 이번에 공급하는 우량 누에씨는 농업기술원 곤충잠업연구소가 지역 양잠농가를 위해 2년 전부터 원누에를 사육, 보통누에씨를 생산한 것이다.
- 봄철에 공급하는 누에씨는 1상자당 누에알 2만개가 들어있다. 백옥잠과 금옥잠 품종으로 공급대상은 전남 16개 시·군 약 150여 농가이다. 연간 약 15억원 이상의 농가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대부분 다른 지자체는 농가 공급용 보통누에씨를 생산하는 잠종업체가 있다. 따라서 잠업기관은 원누에씨만 생산하고 있지만 전남에서는 잠업농가에 보다 건강한 우량 누에씨를 공급하기 위해 2004년부터 곤충잠업연구소가 직접 누에를 사육해 철저한 소독과 영양 관리로 우수한 누에씨를 생산 공급하고 있다.
- 양잠농가에 적기 공급을 위해 지난달 하순 7개 표본지역을 대상으로 뽕나무 개엽상황(눈에서 포개진 잎이나 꽃잎이 펼쳐진 모양)을 조사했다. 그 결과 뽕잎이 2~3장 이상으로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때 양잠산업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낮은 가격의 실크제품으로 크게 위축됐다. 그러다 1995년 이후 실크원료 생산보다는 누에가루, 동충하초, 화장품 등 기능성 제품과 인공뽕·인공고막 등 생명공학 소재의 양잠산물 생산으로 전환됐다.
- 이제는 '입는' 양잠에서 '먹는' 양잠으로 변화고 있으며, 기능성양잠 산업육성법을 제정하고 종합대책을 수립, 종합단지 조성 및 유통시설 지원사업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 최향철 농업기술원 곤충잠업연구소장은 "우량 누에씨 생산 공급뿐만 아니라 누에를 이용한 기능성 소재 및 다양한 강장제품 개

밭, 부산물을 이용한 소재화 연구를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신소득 원을 창출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전남농기원 "배 착과불량 과원 적극 관리해야"

- 전남도농업기술원은 배 착과불량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내년도 결실량 확보를 위해서는 후기 과원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19일 당부했다.
- 기술원에 따르면, 열매가 달리지 않은 과수원을 그대로 두면 상품 가치가 없는 과일이 많아지고 꽃눈도 맺히지 않아 내년도 결실량 확보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기술원은 배 착과불량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선 현장에서 영농 컨설팅과 농업인 교육을 담당하는 각 시·군농업기술센터 과수 담당자 연찬회를 20일 영암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다.
- 최진호 농촌진흥청 배연구소 박사는 "열매가 너무 달리지 않은 나무는 지나치게 햇가지가 많이 발생해 무성해지면 검은별무늬병 등 각종 병해충 발생이 심해질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5~6월 사용하는 웃거름 중 질소 성분은 토양 시비처방량의 50% 이상 감량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정적인 나무자람새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 열매숙기 작업 때에는 올해 생산량 감소를 최소화하고 내년도 안정적인 결실량 확보를 위해 병든 과실 이외에는 가급적 숙아내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 열매 달림 불량률이 심하지 않는 나무는 열매를 맺는 가지(결과지)로 사용하기 좋은 위치에서 발생한 햇가지를 6월 하순부터 7월 상순 사이 가지를 유인해 과실품질 향상과 꽃눈의 형성을 높여줘야 한다. 장마철 배수로 정비를 철저히 해 뿌리가 습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태풍 등에 대비해 과실이 떨어지지 않도록 가지를 덕에 단단히 묶고 방풍망 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전남지역 배 재배면적은 전국 1만3127ha의 27.4%인 3595ha이며 나주지역이 2225ha로 전국의 16.9%을 차지한다. 영암 486ha, 순천 208ha, 신안 115ha 순이다.
- 황수정 기술지원과장은 "장기적으로는 수분수를 30% 이상 확보한 농가는 인공수분에 관계없이 착과가 비교적 양호했으므로 수분수 품종을 심거나 줄기 높게 접하기를 해야 한다"며 "배 착과불량에 따른 안정적인 결실과 후기 과원관리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전남농기원, 비단향꽃무 절화 1년 2번 생산기술 개발

-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최경주)은 최근 저온성 화훼작물인 비단향꽃무(스토크) 절화(切花)를 1년에 2회 생산할 수 있는 재배기술을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 비단향꽃무의 1년 2회 생산기술의 주요 핵심은 이른 봄 하우스 무가온 재배시 흔히 발생하는 내부 과습환경을 재식방법과 환기장치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연작지의 토양 염류농도는 녹비용 옥수수 재배후 토양에 환원하는 것이다.

- 먼저 봄재배 재식방법은 10울 식재 관행 보다 20% 적은 8줄로 정식해 식물체간 공기순환을 용이하게 한다. 이어 재배기간 중에 과습환경이 조성되는 야간에는 하우스 상부에 설치한 공기 순환팬을 가동하면서 소형 배풍기와 연결된 비닐덕트를 이랑사이에 송풍한다.
- 이렇게 하면 하우스 상부 공기 순환팬만 이용하는 것보다 시설내 상대습도가 7% 낮게 나타나 균핵병 피해율이 관행 7.6% 보다 개선시에 절반으로 낮아졌고 5월초 꽃 출하량은 10% 증가하여 일반농가에 비해 10a당 소득이 약 104만원 늘었다.
- 시설재배 연작지에서 건전한 토양관리를 위해 봄재배 절화를 수확한 다음 가을재배 모종을 본포에 옮기기 전에 녹비용 옥수수를 파종해 최소 50일이 지난 뒤 옥수수와 함께 토양을 경운 혼화해 토양의 염류농도를 낮췄다.
- 이럴 경우 옥수수를 심기 전 토양의 염류농도(EC)가 4.4dS/m이던 것이 토양에 옥수수를 환원한 후 농도는 2.3dS/m로 경감됨으로써 근권환경이 양호해져 생육이 증가되면서 11월말 상품꽃 비율이 7%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꽃 출하량도 10% 늘어나 일반농가에 비해 10a당 소득이 약 212만원 늘었다.
- 지금까지 비단향꽃무는 저온성 작물로 가온하지 않고도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어 각광을 받았다. 하지만 육묘가 까다롭고 시설내 과습 환경관리의 애로점과 연작으로 인해 상품성에 치명적인 병해가 발생하는 점, 생육이 균일하지 않아 꽃 출하에 많은 애로를 겪어왔다.
- 비단향꽃무는 화려하고 향기가 진하며 말린 후에도 꽃모양과 향기를 그대로 즐길 수 있어 화훼장식가와 소비자들 특히 연인들이 선호하는 신세대 꽃으로 알려져 있다.

- 김정근 박사는 "고소득 화훼작목 비단향꽃무의 시설재배 과습환경 개선과 연작피해 대책기술을 농가현장에 적용해 생산비를 줄이고 품질을 향상시켜 돈 버는 재배기술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8. 정책동향

◆ 영농철 범도민 농촌 일손 돕기 나선다

- 전남도, 6월 21일까지 1달간 고령·노약·부녀자 가구 집중 지원 -
- 전라남도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범도민 농촌일손돕기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 봄철 일손돕기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한 달 동안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공직자와 각급 기관의 임직원 등이 나서 수작업 인력이 많이 필요한 양파나 마늘 수확, 과일 열매 숙기와 봉지 씌우기 작업 등을 지원한다.
- 전라남도는 일손 돕기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우선 도 본청과 22개 시군, 읍면사무소, 지역 농협에 농촌 일손돕기 알선 창구를 개설하고, 도 누리집에서 농촌 일손 돕기 인터넷 접수를 통해 일손을 찾는 대상과 일손을 구하는 농가를 연결하기로 했다.
- 또한 시군과 농협 등에서 지원하는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을 영농기 농촌 인력 지원으로 활용토록 시군별 공공 일자리 부서에 농촌 일손돕기 추진단을 별도로 설치해 운영한다.
- 특히 범도민적 농촌 일손 돕기 분위기를 조성할 위해 도 농축산식품국 전 직원이 오는 27일 나주 문평면 밀 재배농가 일손 돕기를 시작으로 총 3회에 걸쳐 농촌 나눔활동 및 일손 돕기에 나선다.
- 또한 전라남도교육청을 비롯한 시군 공직자와 유관기관(23개소), 지역 대학(12개소)에도 동참을 요청하고, 동시에 대상 마을 및 농

가와 자매결연을 추진함으로써 농촌현장 체험과 농산물 사주기 등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 위삼섭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촌의 고령화, 부녀화 및 인건비 상승으로 농촌 일손 부족이 예상된다”며 “바쁜 농촌에 보탬이 되도록 범국민적인 일손 돕기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전라남도

◆ 농수축산물 도지사 품질인증 신청하세요

- 전남도, 6월 11일까지 신규·연장 희망업체 시군서 접수 -

- 전라남도는 다음달 11일까지 2015년도 상반기 ‘도지사 품질인증’ 신규 및 연장 신청을 해당 시군을 통해 접수받는다고 27일 밝혔다.
- 인증 대상 품목은 농산물, 과자·당류, 음료류, 주류, 축산, 수산 등 8개 분야, 473개 품목이다.
- 신청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생산자단체와 농수특산물 제조업자, 전통식품·산지 일반 가공업자나 기존에 도지사 품질인증을 받았으나 기간이 만료돼 연장을 희망하는 업체다.
- 또한 도내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도내에 주 공장이 소재하고 있고, 전남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로 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해 도내 생산지로 표기돼 판매되는 제품도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6월 11일까지 관련 신청서류를 갖추고 해당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 ‘전라남도지사 품질인증’ 제도는 도지사가 전남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특산물 및 가공식품의 품질을 인증해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판매 촉진 등 도내 농수특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 지난 2003년 첫 시행 이후 현재까지 308개 업체 1천43개 제품이 품질인증을 받아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 통합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 전국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판매처에서도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이 입점돼 판매되는 등 친환경 농수특산물 및 가공제품의 신규 판매처 및 매출 확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 실제로 최근 품질인증을 받은 농업회사법인 (주)정심푸드는 ‘고구마 말랭이’를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에 입점시켜 현재까지 50억 원 가량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 또 ‘모후실에서 만난차’의 경우 온라인쇼핑몰, 직거래 등을 통해 1억 5천여만 원의 매출 실적과 함께 다양한 판촉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전라남도는 도지사 품질인증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인증 신청 품목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분야별 전문 실사반을 구성해 합동 현지실사를 거친 후 6월 중 ‘전라남도통합상표심의위원회’에서 도지사 품질인증마크 사용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 도지사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은 3년간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매뉴얼에 따라 ‘도지사 품질인증 마크’를 인증 품목 포장재에 인쇄 및 부착해 사용할 수 있다.
- 김태환 전라남도 식품유통과장은 “전남 식품기업이 도지사 품질인증을 통해 제품 판매가 촉진되고, 소비자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식품기업들은 품질 인증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소비자들은 인증품목을 믿고 애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편 ‘도지사 품질인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누리집 농정해양 농정정보란과 도 식품유통과(061-286-6454), 시군 식품유통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전라남도

◆ 친환경 학교급식 안전관리 강화

- 전라남도는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위해 추진 중인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업체의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 현재 시군에는 전라남도에서 지원한 잔류농약 간이검사기가 설치돼 있어 수시로 급식시설 및 공급 업체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시스템이 구축된 상태다.
- 전라남도는 친환경 학교급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잔류농약 간이검사와 함께 급식시설에 납품된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중 일부 품목을 무작위 추출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에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하고 있다.
- 그 결과 잔류농약이 검출된 농산물을 공급한 업체에 대해서는 식재료 납품을 중단하고, 3회 이상 적발된 업체는 다음 연도 선정에서 배제하는 등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 김태환 전라남도 식품유통과장은 “이번 안전성 일제 점검을 통해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도내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이 100% 공급되도록 계약재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편 전라남도는 올해 614억 원을 지원해 2천604개교, 30만 3천 명의 학생에게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를 공급 중이다.

*출처 : 전라남도

◆ ‘15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폐업지원금 지급품목 결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5월 19일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대두감자고구마체리멜론노지포도시설포도닭고기밤에, 폐업지원금**은 체리노지포도시설포도닭고기밤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FTA 농어업법 제7조 1항에 근거,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90%)을 보전

* 폐업지원제도: FTA 농어업법 제9조 1항에 따라 FTA 이행으로 과수축산 등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 등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

- 지원위원회는 농업인등 지원센터로부터 조사분석 결과를 보고 받고, 지원품목을 이와 같이 선정하였다.

- 지원센터가 '14년도 수입량과 가격 동향 등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옥수수녹두대두감자고구마 등 총 11개 품목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발동요건을 충족하였다.

- 다만, 옥수수와 녹두는 미국, EU 등 일부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증가하였으나, 전체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감소하여 FTA 이행이 가격 하락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급품목에서 제외*되었다.

* 옥수수와 녹두의 수입기여도가 0으로 계산됨(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액 산정시 국내 공급 증가, 소비 감소 등으로 인한 가격 하락분은 제외하고,

FTA이행에 따른 수입량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분만 반영)

- 또한, 지원위원회는 폐업지원금 지급품목으로 체리노지포도시설포도닭고기밤을 선정하였다.
- 폐업지원금 지급품목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품목 중 1) 투자비용이 커서 폐업시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어렵고, 2) 재배사육기간이 2년 이상으로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어려운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상기 5개 품목이 이에 해당된다.
- 농식품부는 6월 중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직접피해보전품목을 고시할 예정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품목 고시일로부터 2개월 동안 거주지 소재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건강한 장바구니, 농촌 6차산업이 만듭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양재 하나로클럽에서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건강한 장바구니, 농촌 6차산업이 만듭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농식품 6차산업화 우수제품 소비자 판매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기획전에는 올해 제1차 6차산업화 우수제품 유통품평회(4.22)에서 선정된 최우수 업체 해남고구마식품, 청매실농원, 행복우리식품영농조합법인 등 30개 업체가 만든 유제품류, 건강식품류 등 87개 제품을 소비자에게 선보인다.

- 이번 판매전에서 판매실적이 높거나 소비자 평가가 우수한 제품은 적절한 유통 채널 입점까지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올해 오프라인에서 추진되는 「6차산업화 우수제품 판매전」은 5월부터 12월까지 총 4회에 걸쳐 농협 하나로클럽, 백화점, 대형마트 등 채널을 다양화하여 개최될 예정이다.
- 또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홈쇼핑, 소셜커머스 등 최근 유통 트렌드를 반영한 유통채널에서도 연중 6차산업화 우수제품 특별전을 병행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접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총 4회에 걸쳐 개최될 소비자 판매전은 회차별로 계절 등에 맞게 테마를 정하여 시의성과 시장 니즈를 반영함으로써 참여하는 경영체들이 성과를 낼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 농식품부는 특히 올해부터는 6차산업화 경영체가 생산한 우수제품을 발굴, 시장조사부터 전문 유통업체에 입점지원까지 이어지는 일관화 된 판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6차산업화 기업의 역량강화와 농업·농촌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한다.
- 또한 판로부분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도별 6차산업 우수제품 안테나숍 설치, 자체 기획판매전 추진 등 지자체와 농식품부가 각자 잘 할 수 있는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6차산업 우수제품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한 업무효율화를 도모한다.
- 작년에 추진한 유통품평회(1회), 판로확보 전략 설명회(3회), 6차산업화 우수제품 기획판매전 개최(6회)를 통해 다수 업체가 현대백화점, 농협하나로클럽, 행복한 백화점, 농협쇼핑몰 a마켓 등에 입점하는 성과가 나타났으며,

- 올해도 6차산업화 우수제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과 옴니채널을 포함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입점 지원 등 보다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판매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안호근 농촌정책국장은 “6차산업화 사업자가 생산한 제품의 판매활성화를 위해 제품군별, 사업자별 차별화된 유통채널을 활용한 판로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인삼(人蔘), 농산물 최초 “의무자조금” 도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농산물 최초로 인삼 의무자조금이 도입 된다고 밝혔다.
- 한우양돈 등 축산분야는 ‘05년부터 의무자조금이 도입되어 소비 촉진과 수급안정 등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으나,
 - * 도입/조성액 : 한우(‘05년/329억원), 양돈(‘05/183), 닭고기(‘09/28), 계란(‘09/21), 오리(‘13/6)
- 농산물은 단계별(생산-가공-유통) 구심점이 미약하고 자조금 거출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생산자들만 참여하는 임의자조금으로 운영되어 왔다.
 - * 농산물 임의자조금 현황 : 파프리카, 참다래 등 23개 품목(조성액 173억원)
- 임의자조금은 일부 생산자만 참여하여 자조금 거출규모가 적고 무임승차 문제도 해소가 어려워 자조금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 시장개방 확대로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수급 불안정성 등을 해소하고 소비촉진을 확대하는 방안중 하나로 농산물에도 의무자조금

을 도입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지속 확산되어 왔다.

- 인삼도 소비위축, 재고증가 등 산업전반에 불안심리가 최근 감지되면서 업계 모두가 참여하는 의무자조금 필요성을 인식하고 도입을 논의한지 3년만에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 인삼임의 자조금 : '07년 도입, 연평균 약 3억원 규모 자조금 거출

** 소비위축 관련 지표 : 신규 식재면적 감소, 수출정체, 홍삼시장 점유율 하락 등

- 인삼 의무자조금은 금년 20억원의 자조금을 조성하고 '18년까지 50~100억원 규모의 자조금 조성을 목표로 추진된다.

- 조성된 자조금은 소비촉진과 수급안정 등 인삼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사)한국인삼협회 자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운영될 계획이다.

* 거출규모 : 약 10억원{생산자 5억원(280천a×1,800/a당), 자체검사업체 4.9억원(홍삼 900/kg, 백삼 300, 태극삼 500, 기타홍삼 500) 등}

- 특히, 국내 소비 확대를 위해 인삼 소비 주체의 연령을 젊은 연령층(10~40대)으로 확대하고,

* 소비층 확대 전략 : 10대(인삼음료), 20대(파우치), 30대(인삼정 캡슐), 40대(엑기스) 등

- 중국, 아세안, 베트남 등 FTA체결국 및 중동아프리카EU지역 등으로 수출영역을 확대한 新진생로드(Gingseng-Road)을 개척, 실질적인 인삼산업 발전을 견인케 한다는 계획이다.

* 향후 전략적 수출 타겟 국가 : 중동, 아프리카, 브라질 등 남미

-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산물 최초로 도입되는 인삼 의무자조금을 축하하는 출범식행사를 5.21(금), 양재동 aT센터(14~15시)에서 개최한다.

- * 행사 주요내용 : 도입배경 설명(동영상 상영), 출범식 퍼포먼스, 결의문 낭독 등
- 출범식 행사에는 농해수위 국회의원을 비롯한 인삼관련 단체장, 한국인삼협회 대의원(70명) 및 임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 * vip참석 현황 : 장관, 이인제윤명희의원, 이상욱대표, 김준기인삼공사사장 등
- 이날 행사에서 한국인삼공사(김준기사장) 특별출연금으로 4억원 전달하여 인삼의무자조금을 통한 인삼업계의 새로운 출발을 지원한다.
- 아울러, 농식품부와 한국인삼협회는 출범식 행사 통해 인삼 소비 촉진 등 인삼 산업발전을 도모하고 의무자조금 조성 분위기를 다른 농산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 '17년까지 14개 농산물 의무자조금 추진 : ('15) 인삼, 버섯, 파프리카, 참외 → ('16) 사과, 배, 참다래, 감귤, 백합, 친환경 → ('17) 복숭아, 단감, 포도, 육묘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정부 내년 예산 보조금 삭감...농업예산 '직격탄'

- 정부 부처별로 2016년도 예산 초안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가운데 전체적인 보조금 사업 감축과 함께 농업분야의 예산이 삭감될 우려가 제기돼 주목된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4월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보조금 사업 10% 감축과 600개 유사·중복사업의 조기 통·폐합을 결정하면서 농업분야의 예산삭감 우려로 이어졌다.
-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 보조금 사업은 부처별로 2056개(58조4239억 원)에 달한다. 이중 농림축산식품부는 203개(6조5441억 원)로 보건복지부의 255개(26조1861억 원) 다음으로 많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209개(5조1844억 원) 등의 순이다.

-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가 145개(1조3632억 원)이고, 산림청 49개(1조254억 원), 농촌진흥청 22개(1715억 원) 등이다. 이들을 모두 포함할 경우 농림축산수산분야 보조금 사업은 4개 부처기관 419개(9조1042억 원)에 달한다. 그만큼 농림축산분야와 수산분야까지 농어업인과 연계된 보조금 사업 및 예산삭감 폭이 클 것이란 전망이다.
- 농식품부의 경우 올해 예산이 14조431억 원으로 국가 전체 예산 375조4000억 원의 3.74%에 그친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최저수준이다. 더욱이 농식품부의 올해 예산 증가율은 지난해 대비 3.0%로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5.5%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소외받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농식품부에 따르면 융자사업 등을 제외한 순수 보조금 사업은 160개로 기재부 지침에 따라 사업 숫자를 10% 삭감할 경우 16개 사업을 없애야 한다. 하지만 사업이 폐지되면 해당 부서의 업무도 사라지므로 실질적인 사업 폐지 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더욱이 이들 보조금 사업은 농촌지역 복지사업 등이 많아 폐지되거나 복지부 사업과 통·폐합될 경우 농업인들의 반발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부처별로 보조금 사업을 10% 일괄 폐지하는 것보다 업무조정을 통해 사업을 유지하면서 예산도 증액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와 함께 정부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추진하면서 중앙부처 360개 복지사업 가운데 지원대상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48개 사업을 통·폐합키로 하면서 농어촌 복지사업 폐지 우려가 제기됐다.

- 실제로 농식품부 ‘가사도우미사업’의 경우 복지부의 ‘단기가사지원 서비스’와 통합이 추진되다 농촌 특성을 감안해 농식품부가 사업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기도 했다. 이것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의 농민단체가 성명서를 통해 ‘가사도우미’ 제도의 필요성과 통·폐합의 부당성을 제기하면서 총리실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재조정된 것이다. 하지만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어서 통·폐합의 불안감이 상존하는 셈이다.
- 한편, 내년도 정부 예산은 부처별로 6월 5일까지 기재부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고, 부처별 협의와 여론수렴을 거쳐 9월 11일 국회에 제출된다. 김광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예산당국이 세수부족을 핑계로 열악한 농어촌 지역 복지사업 등의 보조금 사업을 폐지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복지기조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FTA 확대로 농업인들의 피해가 누적된 만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것은 물론 기존의 보조금 사업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9. 해외 농업정보

◆ 캐나다 온타리오, 조류독감 두 번째 발병

캐나다 식품검역국(CFIA)에 따르면 온타리오 농가 조류독감 예비검

사에서 H5 조류독감 인플루엔자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정부기관에 따르면 육계사육 농가들은 조류독감 확산통제를 위해 격리되었다고 한다. 바이러스의 정확한 형질을 조사하기 위해 추가적인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류독감 인플루엔자는 조류의 전염성 바이러스 질병이다. 대부분의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으며, 가금육 가공제품이 적절하게 취급되고 요리된다면 식품안전위험도 야기하지 않는다. 이번달 초 캐나다 당국은 온타리오 칠면조 농가에서도 H5 조류독감 인플루엔자를 발견했다. 이때 발견된 바이러스는 고병원성 H5N2 조류인플루엔자로 미국 전역에 퍼졌던 형질과 비슷한 형질이다. H5N2는 미국 오레곤에서 아칸소까지 퍼졌던 형질로 사람에게 감염된 바는 없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시장곡물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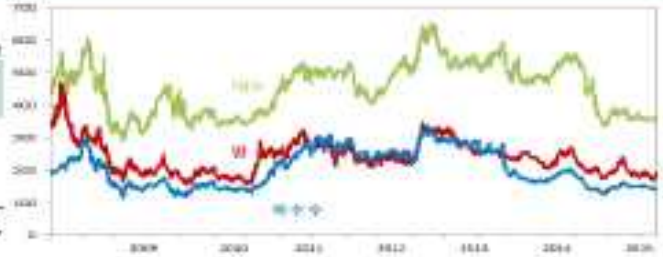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5. 5. 21.(시카고 선물거래소)

대두 가격, 기상 여건의 양호로 인한 작황 호조의 기대심리로 7개월래 최저치 기록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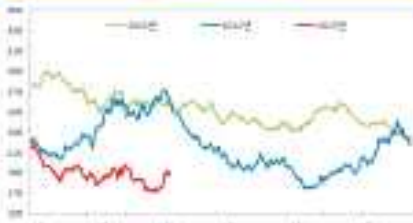
구분	기준일 (15.5.20)	전일대비	전월평균 (15.4)	2014 평균
밀	186.49	▲0.5%	164	216
옥수수	141.73	▼0.5%	147	164
대두	345.93	▼0.5%	357	455

단위 : US\$/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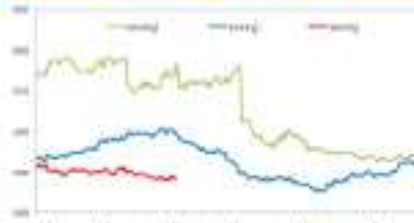
수)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국제선물일: 55W), 옥수수, 대두의 4월분(밀, 옥수수, 대두: 7월분) 평균가격임.

밀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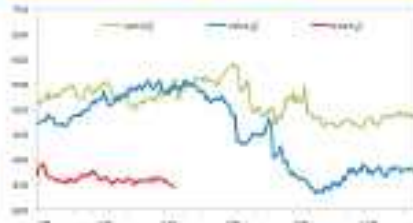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미국 대평원 지역의 폭우로 인한 병해충 발생 증가 등 품질 저하에 대한 염려로 가격이 상승했음. 미국 기상정보제공업체 Commodity Weather Group은 남부 대평원 지역의 폭우로 인해 내년간의 가뭄으로부터 탈피하였으나 오하이오주와 테네시주의 일부 지역에 흉수를 야기했다고 밝힘. 우크라이나 농민부는 기상 여건의 호조로 2015년 밀 생산량 전망치를 당초 2,000만 톤에서 2,100만 톤으로 상향 조정하여 발표함.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기상 여건의 양호에 따른 작황 호조의 기대심리로 인해 가격이 하락했음.

대두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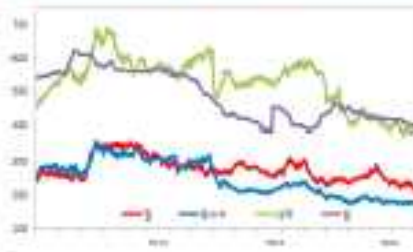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향후 기상 여건의 양호로 인한 작황의 호조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해 7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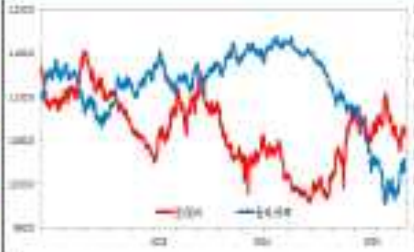
관련동향

- 미국산 곡물 수출가격은 밀을 제외하고 강세를 보이고 있음.
- 국제유가는 미국 원유 채고 감소, 중동지역 정정불안 고조 등의 영향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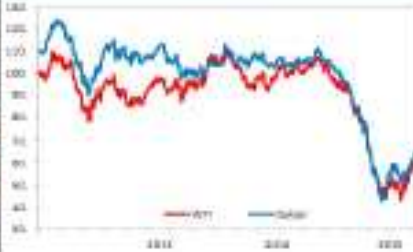
곡물 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곡물수출가격 (FOB)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밀	217	▲1.0%		원/달러	1,001	▲0.5%
	옥수수	170	▼1.8%		달러/유로	1.11	▼1.5%
	대두	382	▼0.8%		WTI	58.98	▲1.7%
	밀	384	-	Dubai	61.75	▼1.7%	

수) 밀(US 52W Gulf), 옥수수(US 3T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de B), WTI(7월분), Dubai(연분)
 라) 기준일과 '15.5.19(수출가격), '15.5.20(환율), '15.5.20(국제유가)에 따라 자료출처(국제곡물기사의,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일체에서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10. 고소득 농업사례

■ 청년농업인—장성 동화 믿음농장 이사무엘씨

- 옛날 쇠죽 끓이는 방식으로 소 사육...`부농의 꿈` -

- 2천314m² 농장서 100여마리 명품·고급육 생산
일반 사료 TMR과 비교하면 20%정도 비용 절감
전통화식 한우 직매장서 소비자 입맛 사로잡아
- 일반적으로 동물성 사료를 먹인 소사육농가를 많이 보았다. 하지만 전남 장성에는 옛날 방식대로 쇠죽을 끓이듯이 혼합사료를 화식가마에 넣고 끓여 소먹이를 주는 농가가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 전남 장성군 동화면 남평리에 자리잡은 믿음농장.
- 농림축산식품부의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친환경 축산농장으로 농장주 이사무엘(27)씨는 지난 1982년부터 축산업에 오랜 경험이 많은 아버지 이철환에게 한우사육을 배우고 있다.
- 현재는 2천314m²(700여평)의 면적에서 무항생제로 키운 암소 100여두를 사육을 하고 있다.
- 이 곳 믿음농장에서는 볏짚, 사료 등과 함께 섞어 쇠죽을 끓이듯이 현대식 화식기계를 이용해 하루에 두번 소먹이를 만든다.
- 쇠죽의 재료는 사료작물과 볏짚, 콩비지, 콩깍지, 쌀겨(미강), 호박, 고구마, 우거지 등 농부산물이다.
- 소에게 쇠죽을 끓여 먹일 경우 바이러스 등 질병 감염이 적는데다 비육기간도 단축돼 고급육우를 생산하는데 큰 장점이 있다.

- 매일 아침과 저녁 화식을 이용해 소를 사육한다는 것은 열정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 하지만 화식의 장점은 비용면에서 일반 사료인 TMR과 비교해 80% 수준으로 20%정도의 비용이 절감된다.
- 아버지의 이런 화식 옹고집을 이어 이씨도 배가드는 노동력을 들여 정성으로 소를 키우고 있다.
- 이렇게 생산되는 전통화식한우는 단가도 높게 책정돼 있다. 육질과 맛이 좋다는 점도 있지만 일반 동물성 사료보다 농산부산물을 먹인 화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 전국적으로도 화식으로 소를 키우는 곳은 전북 남원에 있는데 지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장성에서는 이씨의 농장이 유일하다.
- 또 담양에서도 화식을 이용해 소를 키우는 곳이 2~3곳 정도에 불과하다.
- 이씨의 어머니 이명숙씨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에서 전통화식한우 직매장을 운영하면서 남편과 아들이 정성들여 키운 한우의 참맛을 판매하고 있다.
- 큰 아들이 식당의 일을 거들어 주고 있고, 작은 아들은 군대를 제대한 후 농수산대학 축산과를 진학해 아버지 뒤를 잇기 위해 체계적인 고급 축산을 배우고 있다.
- 사육장의 맞은 편에 어린 송아지들을 방목하기 위해 넓게 초생지 목장을 준비하고 있다.

- 이씨는 “현재 우사 앞에 넓은 면적에 방목장을 만들어 동물복지와 면역력 증강을 강화시키기 위해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 이씨는 “한번에 200두의 소먹이를 풀일 수 있는 화식기계장비라”며 “일반 생사료를 먹이는 농가보다 사료변동에 대한 소들의 스트레스가 심하지 않은 것이 장점이다”고 강조했다.
- 보통은 소먹이를 변경시키기 위해서는 15~20일 간격으로 조금씩 섞어가면서 변경을 해야 비육과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하지만 화식은 쉽게 섭취할 수 있게끔 여러가지 사료를 함께 풀여서 먹이게 되므로 이러한 염려를 덜게 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20% 정도의 사료값 절감 효과가 있다.
- 이씨는 “생사료를 주는 농가보다는 훨씬 더 일이 많기 때문에 선풍 화식을 선택하기가 어렵다”며 “현재 장성에는 믿음농장만이 유일한 화식으로 소를 키우는 축산농가”라고 말했다.

* 출처 : 남도일보

■ 품질 높이고 생산비 낮추고 유기농쌀 농가 전양순씨

- 백초액 등 이용 법씨 발아...농약 대신 마늘발효액 써 -

- “모든 농자재를 사서 써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무궁무진하지요.”
- 전남 보성군 벌교읍에서 12만5000m²(3만8000평) 규모의 유기농쌀 농사를 짓는 <우리원> 전양순 대표(58)는 부산물을 이용해 직접 농자재를 만들어 사용한다. 이 때문에 비용도 적게 들고, 친환경적이어서 전씨의 비법을 배우려고 찾는 사람만도 연간 4000명이 넘는다.

- 전 대표가 작물에 영양을 공급해주기 위해 사용하는 부산물은 메주를 만들 때 나오는 콩물, 발효액의 침전물, 쌀겨와 깻묵 등이다. 또 목초액과 현미식초, 마늘 발효액으로 농약을 대체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특히 “마늘 발효액은 살균·살충 효능이 있어 방제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이 전 대표의 설명. 아미노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생선을 발효시켜 사용하기도 한다. 시장에서 생선 머리카 내장 등을 구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 모 상태에서는 500~600배로, 아주심기 후에는 300~400배, 분얼 후 성장기에는 200배, 출수기에는 150배로 희석해 사용하면 논에 아미노산을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다.
- 전 대표가 연매출 15억원 이상의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비결은 자가제조한 쌀겨 퇴비. 쌀겨와 깻묵, 어분을 6:3:1의 비율로 섞어 발효시켜 만든 농자재이다. 수분은 꼭 쥐었을 때 물기가 나올 듯 말 듯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6일 동안 덮어놓고 발효시키되 온도가 40℃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산소가 통하게 섞어준다. 전 대표는 이렇게 만든 퇴비를 990m²(300평)당 120l을 논밭에 시비한다.
- 볍씨를 발아시킬 때도 직접 만든 농자재를 사용한다. 발아기를 이용하지 않는 대신, 볍씨를 65℃의 뜨거운 물에서 5분간 온탕 소독을 한 후 백초액·현미식초 등 직접 만든 농자재를 60배액으로 희석해 24시간 동안 담가 놓는다. 이후에는 맑은 물에 담가 두되, 하루에 한번씩 물을 갈아주는 작업을 3일 동안 반복하고, 밤에는 볍씨를 물에서 꺼내 놓는다.
- 전 대표는 “이렇게 하면 발아기에서 볍씨를 띄우는 것보다 더 건강한 볍씨를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유기농은 병해에 취약하고 수량이 적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하지만 전 대표는 “‘쌀겨 농법’을 비롯한 철저한 논관리를 실시한 이후 수량이 관행 농가에 비해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 전 대표는 논관리도 세심하게 한다. 수확이 끝난 논에 볏짚을 이용해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볏짚이 마르기 전에 땅을 갈아엎고 논에 물을 대 발효시킨다. 이렇게 하면 미생물이 왕성하게 번식한다. 경운작업도 이슬이 있을 때인 이른 아침에 한다. 또 1월 전에 쌀겨를 뿌리고 논을 갈아엎어 쌀겨를 발효시키는 과정을 거친다. 쌀겨 발효를 돕기 위해 EM효소제·발효액 등을 논에 뿌려준다.
- 전 대표는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생산비를 30% 이상 줄였다. 또 논이 건강해져 병해에 강하고, 잡초 발생도 크게 줄어드는 효과도 보고 있다.
- 전 대표는 “건강한 먹거리를 생각하다 보니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게 됐다”면서 “유기농 확대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건강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가 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비법을 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 출처 : 농민신문

11. 사업신청 안내

◆ 쌀·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 신청기간 : '15. 3. 2. ~ 6. 15.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관원사무소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법인)
- 대상농지
 - 쌀 직불금 : '98~'00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에 이용된 농지
 - 조건불리 직불금 : '03~'05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
- 지급단가(ha당)
 - 쌀 직불금 100만원, 조건불리 직불금 농지 50만원, 초지 25만원
(지급상한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 '15년도 친환경 녹색축산농장 지정 신청

- 신청기간 : 5. 19. ~ 5. 29.(2주간)
- 지원대상 :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가축사육단계 HACCP을 동시에 지정받은 농장
- 지정기한 : 신청일로부터 50일 이내
- 지정절차 : 농가 → 시군 → 도(서류 및 현장심사 후 지정여부 결정)
- 심사분야 : 가축관리, 환경보전, 자원순환, 경관조화, 기록보존
- 적합판정 : 심사평가 결과 평균점수로 환산 80점 이상일 경우 합격

주간
35 전남농업정보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우) 534-700

Tel. 061-286-6253

Fax. 061-286-4782

